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4. 8. 4.(월) 09:3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34명이 신청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4년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 의결사항

가.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관한 건 (2014-33-097)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관한 건’에 대하여 라봉하 기획조정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봉하 기획조정실장

-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전과 주요 정책과제를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기 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향후 3년간 추진할 비전과 주요 정책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기본방향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면 금년 4월 16일 제3기 방통위 정책과제 마련을 위한 향후계획을 위원회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이후 6차례에 걸친 상임위원 간담회 및 전문가 회의 1차례를 개최하여 논의한바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전은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 실현”이며, 7대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및 공정성 강화, 둘째 방송서비스 활성화,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셋째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 넷째 개인정보 보호 등 인터넷의 신뢰성 제고, 다섯째 국민편익 및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여섯째 정확하고 객관적인 재난방송 등 안전망 구축, 일곱째 통일에 대비한 남북 방송협력과 해외진출 강화입니다. 정책 과제별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및 공정성 강화입니다. 방송사업자들이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을 사전에 인지하여 공적 책임을 높이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한 심사기준(심사항목, 배점기준 등)을 고시로 제정합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 지원, 유통 활성화,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관련된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방송평가지 감점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관련연구와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공정성 평가지표 개발, 반영 등을 추진합니다. 4쪽입니다. 둘째, 방송 서비스 활성화,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지상파 방송에 대해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되, 총량제 도입 시 매체 간 영향력을 고려하여 유료방송과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 시청권 침해 우려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합니다. 참고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는 드라마·예능 등 특정 분야 우선 적용, 유료방송 중간광고는 횟수·시간 규제 완화를 건의한바 있습니다. 차세대 방송인 UHD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미래부와 적극 협력하여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UHD 방송 활성화 정책방안”을 마련하며,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확충하여 전문인력 양성,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 교육, 시설 및 장비 제공 등을 강화합니다. 셋째,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입니다. 단말기 유통법 제정에 따른 규제 대상 및 영역의 대폭 확대에 대응하여, 온라인 시장 ‘상시 모니터링’ 등은 물론이고, 시장 교란 시에는 적시에 단속하여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유도하고,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따라 앱 마켓

에서의 소액 결제 피해 및 데이터 요금 과다 부과 등 이용자 피해에 적극 대처하고, 유료방송 시장에서 단체계약 해지 지연, 과도한 위약금 등을 시정토록 추진합니다.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방송법·IPTV법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제재를 통합하고 이용자 보호원 설립 등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5쪽입니다. 넷째, 개인정보 보호 등 인터넷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으로 올해 8월까지 온라인상 주민번호를 파기해야 함에 따라 대형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점검,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실시합니다.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위반한 개인정보 유출기업을 엄중 제재하고, 300만원 이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빅데이터 등 인터넷 신(新)서비스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민편익 및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입니다. 특히 조사·심결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변호사·회계사를 비롯한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며, 증거 위주의 심결을 정착시키는 등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여섯째, 정확하고 객관적인 재난방송 등 안전망 구축입니다. 오보·선정적 보도에 대한 방송평가를 강화하여 재허가 등에 반영하기 위해 재난방송 배점을 상향하고, 방송심의규정 위반 시 감점도 강화하며, 재난상황에 맞는 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 등 제도를 정비합니다. 일곱째 통일에 대비한 남북 방송협력과 해외진출 강화입니다. 드레스덴 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 방송 프로그램 공동 제작 및 방송인 교류를 활성화하고, 특집 프로그램 등을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며, 12월에 한-아세안 쇼케이스 등을 통해 방송 콘텐츠 수출을 확대하고, 방송채널의 해외 송출을 지원합니다.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는 <붙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3기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워크숍과 간담회를 통해서 고민하고 합의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절차를 거쳐서 그나마 의미 있는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비전을 마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의결안에 전문을 다 표기, 표현할 수 없어서 약간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짚어서 말씀 드리면 공익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도 공정성 문제를 방통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건의해서 말씀 드렸습시다만 달라지는 것은 방송평가입니다. 방통심의위원회 말고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있는 방송평가위원회에서 또는 관련 사무처 담당 정책 당국자들이 방송평가를 하는데 방통심의와 별도로 방송 공정성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그것을 따로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방송 공정성 평가지표를 합의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합의가능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 후속조치로 나중에 또 논의해야겠지만 일단 학계와 시민단체와 언론계, 전문가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정책세미나를 통해서 사회적 방송 공정성 지표에 관한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 드리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서 아까 실장께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등을 통해서 시청자 의견을 수렴한다' 이 부분을 읽지 않았습니까. 일부러 빠뜨린 것은 아니겠지요?

○ 라봉하 기획조정실장

- 그것은 아닙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여러 차례 논의가 됐습니다만 중간광고 도입은 방송광고 쪽 전문가들의, 그쪽 시장 쪽의 요구만 반영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안 된 이유도 그것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시청자 단체들, 시청자 권익보호 때문입니다.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 의견을 수렴해서, 양 기둥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 나갈 것이고, 저는 지상파 방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참고로 하는,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영국의 공영방송 BBC도 지상파입니다. 미국의 상업방송이지만 역시 신뢰받고 지지를 많이 받는 CBS, NBC도 지상파입니다. 일본의 NHK도 지상파입니다. 우리 방송체계의 기본이 지상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정책을 잘 펴야 하는데 그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국민 여론층에서, 국회에서 그 공적 책무와 공정성을 두고 시비와 논란이 벌어지면 기본정책도 펴기 어렵겠지요. 선행조건으로, 전제조건으로 지상파 방송쪽에 그 공적 책무와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담보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균형 있는 방송정책을 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기본계획 정책비전이 첫 술에 다 배부른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후속 정책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고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 정책과제가 <붙임>으로 있으니까 보고는 이것을 정리한 것뿐만 아니고 <붙임>도 같이 의결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도 오늘 의결하는 제3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제3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는 방통위가 지난 4개월 동안 함께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합니다. 가급적 많은 부분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반면 일부 정책과제는 낮은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그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안건이 의결되면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공식화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화와 토론 그리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세 가지 정도로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의 정책적 입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방송과 통신 등 미디어의 공적 책무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방송법과 방통위 설치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기본책무는 방송의 공적책무와 공공성 및 공정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 부여된 각종 권한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행사하여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

등 방송사들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공정한 방송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방송 저널리즘 기능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을 계기로 이동통신 시장의 정상화와 이를 통한 이용자의 권익 증진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방송통신 산업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숙, 즉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현재 우리 미디어 시장은 상대의 이익을 빼앗아야 내가 사는 철저한 제로섬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 산업의 질적 성숙이나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은 불가능합니다. CPND(contents, platform, network, device)가 선순환하는 미디어 생태계, 다양한 미디어 사업자들이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산업 활성화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정책목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산업 활성화와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할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저함 없이 선택해야 할 가치는 이용자 보호입니다. 사업자 간 공정경쟁도 결국은 이용자를 위한 정책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호하고 산업성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근 4개월에 걸쳐 제3기 방통위가 출범한 이후에 우리 위원회의 비전과 주요 정책과제가 오늘에서야 이렇게 정리가 되고 통과가 되는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하면서 여러 부분들에 대해 이견도 있어서 서로 의견도 다시 또 재정비해서 오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만 저도 사안 사안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합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대체적인 의견에 동의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단편을 몇 가지 말씀드리으로써 보완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규제 완화, 그리고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기조와 함께 우리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를 강화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완화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해서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리화라는 이야기 속에는 우리 국가산업이 발전해 나가는 큰 세계적인 트렌드에 있어서 그 흐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송통신 분야는 기술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적 흐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고 또 더더군다나 거슬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고 문제도 지상파, 또 유료방송들 간 규제 문제에 대해 우리가 논의했습니다만 어쨌든 규제 부분이 완화와 합리화 이런 쪽으로 큰 틀의 방향을 잡아나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지금 공간에 논의되고 있는 UHD 방송 문제도 이것이 우리 기술발전에 따라서 모든 매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 정책의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UHD 방송과 관련해서는 지상파 정책도 동시에 수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UHD 문제가 가전사 문제, 그리고 콘텐츠의 문

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 발전 전략에 대해서는 범부처가 공통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는 그런 정도로 말씀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왜 우리가 UHD 방송에 대해서, 지상파 정책에 관해서 우리 나름대로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송정책은 그동안 지상파가 중심이 되고 그것이 발전해서 공·민영 방송으로 발전했고 이어서 케이블과 위성, IPTV 등 이렇게 해서 유료방송이 공존하는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법 체계도 자체가 지상파와 함께 유료방송도 포괄하는 그런 방송법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민영이 공존하는 그런 지상파 중심 체계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UHD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 방송이 흑백에서 컬러, 컬러에서 HD, HD에서 UHD로 넘어가는 그런 차세대의 보편적인 방송의 체제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UHD 이후에 또 다른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또 다른 방송의 시스템이 나타날지 모르지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UHD라고 하는 것에서 지상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필수적인 방송체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지상파는 아시다시피 콘텐츠의 생산기지입니다. 우리나라 콘텐츠의 80%가 지상파를 통해서 생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UHD가 과연 성공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상파에 상당한 무게 비중이 실려 있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에도 말씀 드렸습시다만 우리가 창조경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콘텐츠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콘텐츠의 중심에 지상파가 있다고 생각하면 UHD 시대에도 당연히 지상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저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 드립니다. 특히 또 지상파는 어떻게 보면 주파수를 정부로부터 빌려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혜택을 받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 방송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법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편성부터 해서 광고, 모든 분야에 우리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청정지대와 같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상파가 UHD 시대에 지상파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SO나 이런 기존의 다른 플랫폼에 종속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의 방송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주파수 문제와 관련해서, 700MHz 주파수 할당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상파에도 당연히 우선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새로이 도입되고 있는 SFN(Single Frequency Network)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 따르면 주파수가 전국방송을 하는데 54MHz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상파 측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700MHz대에서 108MHz가 여유폭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 40MHz는 통신용으로 일단 방통위에서도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 재난망으로서 20MHz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20MHz를 우선적으로 판단하더라도 54MHz의 지상파용 주파수를 생각하면 74MHz가 되고, 그러면 108MHz에서 34MHz의 여유주파수가 남는다, 그 부분에 관해서 통신용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의견입니다. 그리고 UHD 방송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고 나면 현재 HD에서 쓰고 있는 228MHz라고 하는 광대한 그 주파수는 완전히 반납이 되고, 거기에는 얼마든지 통신용으로도 재활용이 가능한 주파수 대역이 남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도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서로 잘 협의하면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상파의

경우에 직수율이 낮아서 10%가 되지 않는다, 직접수신하는 가구수가 아주 작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SFN을 이용하면 주파수의 전계강도가 훨씬 강해지기 때문에 직수율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그런 기술적인 난점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광고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재홍 위원님과 고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송의 공적 책무, 공정성, 공공성, 공익성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송법의 기본적인 정신이 이것입니다.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큰 틀의 정신에서 시작한 것이고, 그것이 민영방송까지 확대되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료방송까지도 어쩌면 이런 방송의 기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공성, 공익성, 이 부분은 당연히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광고시장에 대해 좀 더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의 주 재원은 시청료입니다. 시청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영방송은 광고가 주 재원입니다. 그리고 유료방송은 수신료가 주 재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공·민영 방송, 그리고 유료방송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광고에 올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방송계가 안고 있는 최대의 난점입니다. 공영방송은 사실 국민의 시청료로부터 자기의 주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40%도 채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영방송도 광고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민영방송은 당연히 자신들의 주 재원이 광고니까 또 광고에 치중합니다. 원래 유료방송은 가입자의 수신료가 주 재원인데 그것을 저가로 해서 광고에 또 올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시장이 완전히 광고로 해서 레드오션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미디어미래연구소에서 지난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방송의 광고에 편중되어 있는 재원이 대한민국이 66%입니다. 일본 46%, 독일 30%, 프랑스 29%, 영국은 3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광고에 치중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SO나 다른 위성방송도 마찬가지이고 유료방송 플랫폼의 경우에는 수입을 어디에서 주로 채우고 있느냐 하면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주요한 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홈쇼핑이라는 것은 직접광고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다른 하나의 광고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료방송의 수신료 부분도 정상화되어 있지 않고 광고료는 광고료대로 전부 광고시장에 올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O는 SO대로 그런 홈쇼핑 수수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당기순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PP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적자입니다. SO가 6,2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 반면에 일반PP는 통틀어서 534억원의 적자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재원구조가 기본적으로 잘못 왜곡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광고시장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이것을 좀 더 봐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과거에는 강력한 시청률로 인해 광고시장에서 강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는 세월이 변해서 지상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취약한 하나의 매체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점은 중간광고를 지상파에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 2007년도 방송위원회 시절부터 논의가 다 끝난 상황이었었는데 그것이 아직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흘러 내려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중간광고 문제에 대해 우리가 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대칭 규제로 인해, 앞으로 비대칭 규제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할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이번 주요 정책과제도 고민의 일단이 담겨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지상과 UHD 말씀하시면서 주파수 말씀도 잠깐 해 주셨습니다. 주파수 부분은 방통위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미래부와 공동으로 의견을 모아서 최종적으로는 총리실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선 미래부와 보다 더 긴밀하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도 한 5분쯤 말씀드려도 됩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괜찮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제3기 정책과제에 담겨 있는 개별 이슈에 대한 제 의견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 상정한 이 안건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견이 없습니다. 단지 4개월간 준비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이나 또 정책과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평가해 보고, 일부는 제안도 해 보고, 저의 개인적인 각오 등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3기 방통위 정책 과제의 의미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것이 방통위 내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휴일에도 몇 차례 나왔습니다만 위원님들 간 그리고 위원님들과 사무처 직원들 간 앞으로 제3기 방통위가 가지고 가야 할 역할, 기능, 비전, 과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그리고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방통위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연구와 토론, 리서치도 함으로써 저는 그 과정만으로도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정책과제가 우리 국민들, 그리고 방송통신, 인터넷 분야의 기업들에게 주는 의미를 또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확정하고자 하는 제3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과제는 일종의 제3기 방통위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 일종의 투두리스트(To Do List)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중에는 지난 2기 내지는 심지어 제1기 때도 논의되고 추진하려고 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또 과거의 검토됐던 과제 중에 내용이나 앞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을 보완한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전혀 새롭게 발굴한 과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오늘 정리된 내용 중에 구체성이나 깊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할 숙제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3기 방통위가 앞으로 남은 2년 7~8개월 동안 해야 할 일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말해서 정책학, 행정학에서 말하는 정책결정 단계 중의 첫 번째 단계가 이슈나 문제의 아이덴티파이(identify)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정책과제는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앞으로 우리가 더 폭넓게 깊이 있는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최종 정책 내용을 결정해 나가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서 저는 방송, 통신은 물론, 인터넷 내지 온라인, 그리고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새로운 분야도

제3기 정책과제가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는 매우 어렵지만 인터넷 기반의 아주 다양한 새로운 기술, 서비스로 인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방송과 통신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현행 방송 및 통신과 관련된 제도, 정책을 수정, 개선 내지는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도 정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많이 깊이 있게 다루고 싶었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위원님들 간에 공통된 생각을 같이 하는 내용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방통위가 특히 작년에 미래부와 서로 분리되면서 기본적으로 방송, 통신, 인터넷 분야의 전문 규제기관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규제의 기능도 진흥적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통위가 오늘 제시하는 이런 정책과제 수행을 통해 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아가 창조경제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에서 몇 분 위원님들이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 문제는 최상의 가치이겠지만 우리가 순수한 규제기관의 차원을 떠나서 이러한 진흥 업무 내지는 규제기능의 진흥적 효과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정리된 정책과제 내용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데, 특히 사용하고 있는 단어 내지는 문장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논의와 고민 끝에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아이디어 중 공통된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서는 좀 더 추가하고 싶고 축소하고 싶고 또 보완하고 싶은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정리된 내용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정리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요 이슈인 경우에는 단어 하나, 워딩(Wording) 그 자체, 문장 자체가 많은 숙고와 논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최종 정리된 현재의 워딩, 문맥에 대해서 어느 분이든지 유추해석을 한다든지, 확대해석, 또 행간의 뜻은 뭐라고 주관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 앞으로 방통위가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 드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어서 지금까지 작업해 온 것보다 저희가 앞으로 갈 길이 훨씬 멀고 험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대안모색 및 의사결정, 그리고 또 실행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법령 개정, 예산 확보, 필요한 인력 및 조직 보강, 그리고 관계부처 협의 등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안의 추진 일정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도 앞으로 이런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실현함에 있어서는 거쳐야 할 많은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추가적인 과제발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의 내용만으로도 매우 챌린징(challenging)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이슈나 과제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또 저희는 계속 거기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렇게 논의해서 확정하는 이 제3기 정책과제는 일종의 롤링플랜(rolling plan)의 개념으로 봐야 하지 않나, 그래서 필요하다면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책과제 정리하는 데도 3~4개월이 걸렸는데 과연 앞으로 실행하는 데까지 이것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이러한 정책과제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과정에서 많은 토론, 의견교환, 인식 공유가 됐기 때문에 워밍업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은 속도감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분기 정도마다 위원님들과 사무처의 간부들과 같이 제3기 정책과제에 대해서 중간 추진상황을 점검 내지 분석하고,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다시 강구한다든지 하는, 분기마다 한번씩 일종의 심사분석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3기 방통위가 매우 작은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작지만 강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민과 방송통신 인터넷 관련 기업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도 미력이지만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늘 제3기 정책과제를 그동안 준비하느라고 라봉하 실장님, 김정렬 과장님 포함해서 각 실·국의 국장님, 과장님들, 직원들이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기회를 빌려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특별히 제 의견을 덧붙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제시한 정책과제는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이 발굴해 낸 것이고, 지금 이기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상황변화에 따라서 더 다양한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 저희들이 꼭 해야 할 그런 정책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고, 또 그 진행 경과를 매분기라고 했는데 그것은 논의해 봐야겠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저희들이 세웠던 이 정책과제가 저희들 임기 동안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잘 실현되어 나가는 것을 이루도록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여기에 화면에 <붙임>자료가 없는데 <붙임>도 함께 의결하는 것이지요?

○ **최성준 위원장**

- 여기에 <붙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의결되는 것이지요?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붙임>을 함께 의결하는 것이지요?

○ **최성준 위원장**

- 예, <붙임>으로 있기 때문에 같이 의결되는 것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화면에는 없어서….

○ **최성준 위원장**

- 화면에는 없고 책자가 별도로 놓여 있는 것으로….

○ 이기주 상임위원

- 5페이지에 <붙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붙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의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간의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논의했던 것과 비슷한 의견을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 자체에 반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여기에 덧붙여 가면서 저희들이 계속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8월 7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35분 폐회 】